

# 바리톤 석상근, '인생 2막 이야기'

15일 문화공간 이룸서 콘서트 개최

바리톤 석상근의 '인생 2막 이야기' 가 오는 15일 오후 7시에 문화공간 '이룸'에서 열린다.

섬세한 감성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 바리톤 석상근(Matteo Suk)은 이태리 마스카니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후 티토 폼비 국제성악콩쿨에서 최고의 바리톤 특별상을 비롯하여 자코모 아라갈, 레나타 테발다, 비올라, 움베르토 조르다노, 즐리엠타 시모나토 등 유럽의 권위 있는 국제성악콩쿨에서 일곱 차례 그라프티 우승을 하며 국제무대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주)블뮤직 소속 아티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8년 'My Favorite Songs' 시리즈 중 첫 번째 정규앨범 'Memory'를 발매하고 두 차례의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음악은 곧 인생이며 삶이다'라고 말하는 그의 철학 안에는 작곡가와 청중을 이어주는 전달자로서의 소명의식마저 느껴진다.

이번 공연은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트로 바리톤 석상근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베이스 최준원이 게스트로 참여하며 반주는 피아니스트 최동욱이 함께하여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만날 수 있는



바리톤 석상근의 '인생 2막 이야기' 가 오는 15일 오후 7시에 문화공간 '이룸'에서 열린다.

며 클래식 월간지 '월간리뷰' 발행인 및 대표 김중섭의 진행이 함께 할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가곡 '아 가을인가 (김수경 시, 나운영 곡)'와 '산노

을' (유경환 시, 박관길 곡), '잔향' (이연주 시, 윤화준 곡)으로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 온 다양한 가곡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국가곡 뿐만 아니라 2부 순서에서는 'La strada del bosco' (숲속의 길), 'Marechiaro' (마레키아레), 'Passione' (열정) 등의 나폴리 민요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간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콘서트를 기획한 문화공간 이룸 이운정 이사장은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그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인생의 또 다른 길에 접어들었거나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의미로 함께 마음을 모아 역경을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아 이번 콘서트를 기획했다. 최정상급 바리톤의 따뜻한 음성을 통해 힘겨웠던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희망의 그림을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 관람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띄어 앉기, 공연장 소독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예매할 수 있으며, 공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23-53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교육에 필요한 용품 지원.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태권도' 배운다

태권도진흥재단, 품새·겨루기·태권체조 등 총 7회 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중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120여 명을 대상으로 총복 지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태권도를 지도한다.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총 7회 진행되는 태권도 교육은 품새와 겨루기, 태권체조 등으로 이루어진다. 태권도진흥재단 지도사범들과 지난 7월 선발한 50명의 태권도 봉사단원들이 지도에 나서고 특히 1회차인 6일에는 태권도 시범도 선보어 교육에 참가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태권도 교육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내 야외 운동장에서 진행한다. 또한 지도사범과 태권도 봉사단원에 대한 PCR 검사 및 교육 시 소규모로 분반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태권도 봉사단원으로 선발되어 이번 교육에서 지도를 맡은 강기훈 씨는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알릴 기회가 주어져 정말 기쁘다. 태권도복을 입고 태권도 띠를 매는 것만으로도 기쁜 마음이 들도록 태권도 봉사단원 모두는 교육시간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군산시, 문화재 활용사업 5개 분야 6개 사업 선정

총사업비 10억2천만원 확보

군산시는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2022년 문화재 활용사업 중 5개 분야 6개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0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문화재 여행사업 △생생문화재사업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ICT 실감콘텐츠 개발지원사업 등으로 5개분야 6개 사업이다.

지역문화재활용사업은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는 등 순수 문화재 활용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다양한 지역 문화재활용사업에 꾸준히 선정돼 우리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 가치창출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화재 여행사업은 문화재와 그 주변의 문화시설을 야간에 개방하고, 문화재를 연계하는 야간형 문화향유프로그램으로 7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연산문화재여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행사운영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생생문화재사업은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로운 문화콘텐츠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우리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사업(9년 연속)과 시범사업(2년 연속)이



생생문화재사업 모습.

각각 선정됐다.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은 향교 및 서원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 체험, 문화 프로그램이다. 전통문화의 숨결을 담고 있는 임피향교가 8년 연속 선정되어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3년 연속 선정된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은 동국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국사, 우리나라의 사찰이 되었다'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ICT 실감콘텐츠개발지원사업은 신홍동일보식기육 모형 키트를 활용한 증강현실·가상현실 역사체험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이다.

태왕궁 문화예술과장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전화(063-284-057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최명희문학관, 한글날 다채로운 낭독·체험 행사 열린다

최명희문학관은 9일 한글날을 맞아 관람객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낭독과 체험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의 주요 내용은 소설 '혼불' 속 옛 이야기를 동화로 만드는 시간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문화재단의 '지역문화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뒤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동화 '신발 얻은 아광귀'와 '나무꾼과 개구리'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작품 속 나무꾼과 개구리, 아광귀 형

제, 청암부인과 공심이 등을 연기한 창작극회 배우 박규현·이종화·김수연·김소연 씨가 낭독 공연을 선보이고, 관람객과 '나도 주인공!' 동화 낭독하기 시간을 갖는다. 연극배우에게 다양한 역할의 목소리와 표정 연기 방법을 배우고, 동화 속 등장인물로 분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본다.

한편 각색 작업에 참여한 김근혜·이경옥·장은영 동화작가와는 원작인 '혼불' 속 아광귀와 개구리 이야기를 읽고, 소설이 동화로 새롭

게 태어나는 과정 등을 이야기 나눈다. '혼불'에 나오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며 아름다운 우리말과 친해지는 '국어사전을 펼쳐라!'도 열린다. 참가자에게 동화책과 책갈피를 선물로 준다.

이날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으로 운영된다.

문의는 전화(063-284-057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 14개 시·군 학교서 '찾아가는 소리축제' 만나요"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총 9일간 전북 14개 시·군 지역의 초·중·고교 15곳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소리축제 위원회와 전북도교육청이 협력해 진행되는 7년 차 미래 관객 육성 프로젝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국내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소개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전 동화의 편견을 깨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낭독 뮤지컬인 '삼양동화(해의아이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역동적인 춤과 음악으로 재구성한 댄스 뮤지컬 '판타스틱 앨리스(포스댄스컴퍼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상상력과 즐거움이 담긴 유쾌한 국악 인형극 '이야기 파시오(극단 마루한)'와 음악 여

행자가 들려주는 세상의 다양한 음악 월드 뮤직 워크숍인 '하림&블루카펠 앙상블' 등도 준비돼 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소리축제는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국내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소개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축소됐지만, 공연과 관객이 서로를 만나는 예술적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노윤영 개인전 '사랑의 노래'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노윤영 개인전'이 열린다. 작가는 조선대학교 순수미술학부 서양화 졸업 및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를 졸업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13번째 개인전이며 300여 회의 단체전 및 기획 초대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이란 등 18회의 아트페어에서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모티브로 꾸준히 작업해오고 있다. 한글을 통해 인간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정체성을 시각화하여 조형 요소로 드러내고자 한다. 소재로는 친구, 아버지, 어머니 등 다양한 낱말들로 이루어진 글을 가지고 작업했다. 2017년부터 자신만의 한글 문자를 만들어내며 '욕망' 연작과 '짜깁' 연작을 이어가다 2020년 '사랑의 노래' 한글 드로잉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변화해가고 있는 작품의 내용은 차근차근 삶에 대해 관조(觀照)하며 너그럽고 자유롭게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글은 말과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문자로 훈민정음해례본에서 창제된 한글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담고 있다. 작품에서

'ㄱ, ㅋ'은 오행의 목에 해당하고 나무가 물에서 생겨나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ㄴ, ㄷ, ㄹ, ㅌ'은 오행의 화에 해당하며 'ㄴ, ㅁ, ㅍ'은 오행의 토에 해당한다. 'ㅅ, ㅆ, ㅈ'은 한자의 모양을 상형화한 글자로 오행의 금에 해당한다. 'ㅇ, ㅎ'은 물로 나타나 표현된다.

한글은 소리글자이고, 음양오행의 이치를 각 소리에서 담아내고 있으며 낱말과 소리 그 자체에서 음양오행의 기질이나 특성이 발현된다. 작가는 이 오행의 발음기호와 음양오행에서 뜻하는 의미들을 낱말과 계절의 색으로 엮어 자신만의 문자 추상작품으로 풀어내어 세상을 향해 또 다른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랑의 노래'에서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말이며 가장 필요한 낱말인지도 모른다. 작가는 '사랑'이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 자존감이 낮거나 우울함에 힘겨운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따스한 감정과 순수한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유효상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 은혜상사(주)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 Q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